

「虎叱」의 作者에 對하여

吳 相 泰

<目 次>	
I. 序 言	ㄱ) [段落B]…「五行相生」
II. 本 論	ㄷ) [段落C]…背景과 人物
1. 作品 外的 條件	ㄹ) [段落D]…諷刺의 方法과 對象
2. 作品 內的 條件	Ⅲ. 結 言
ㄱ) [段落A]…「虎」의 正體	

I. 序 言

「虎叱」은 18세紀 實學派의 大家 燕岩 朴 趾源(1737—1805)이 그의 나이 44세 때, 三從兄인 錦城都尉 朴 明源(1725—1790)을 따라 入燕해서, 熱河에 머물러 있던 1780年(正祖 4年, 乾隆 45年) 陰曆 8月에 지어져 「熱河日記」의 關內程史에 記錄되어 있는 漢文短篇小說로 「許生傳」「兩班傳」과 더불어 그의 全盛期의 得意作으로 널리 人口에 膽炙하는 作品이다.

燕岩小說은 李朝小說 가운데서도 國文學史上 特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보아 일찍부터 많은 研究者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었고, 이에 대한 研究業績도 광범하여, 參考資料의 考證으로부터 近代의 性格에 관한 論議 및 實學者의 歷史의 性格을 規定하는 등등의 多角的인 研究가 現在까지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燕岩小說 10餘篇 가운데서 作品「虎叱」의 作者와 主題에 대한 問題點을 提示한 研究者들의 論議도 구체적으로 進涉되고 있는데, 特히 作者 問題와 直接 關係되는 새로운 意見으로서 檻頭된 것 中 筆者の 論旨와 연결되는 것으로 ① 李 家源 教授의 『「虎叱」研究』¹⁾ ② 李 佑成 教授의 『「虎

1) 李家源： 燕岩小說研究（乙酉文化社, 서울, 1965）

叱」의 作者와 主題²⁾ ③ 李在秀 教授의 『燕岩小說考』³⁾ ④ 李源周 教授의 『虎叱』의 讽刺 對象⁴⁾ ⑤ 蘇在英 教授의 『「虎叱」再論』⁵⁾ 들이다.

本考는 이들 先學者 여러분의 업적을 檢討하는 過程에서 「虎叱」의 原作者 와 거기에 따르는 作品의 主題에 대하여, 특히 本篇이 燕岩의 創作이 아닐 可能性의 根據를 提示하여 論하고자 한다.

筆者는 本考에서 어떤 獨特한 見解를 主張하다거나 筆者의 理論을 뒷바침 해 줄 어떤 資料를 발전했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의 여러 업적의 결과 위에서 보다 具體的이고 確實한 論據를 作品外의 條件과 作品自體의 分析을 通하여 보자는 데서 起筆한다.

다시 말하면, 燕岩의 「虎叱」이 果然 燕岩自身의 創作인가, 中國人의 原作을 그대로 筆寫한 것인가, 아니면 原作의 土台 위에서 燕岩이 改作을 한 것인가의 몇가지 疑問을 念頭에 두고, 적어도 本篇이 燕岩의 創作은 아니라는前提에서 筆者의 意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本論

1. 作品外의 條件⁶⁾

우선 「虎叱」이 燕岩自身이 말한대로 自己가 創作한 것이 아니라는 「關內程史」의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關內程史」는 山海關 안으로부터 燕京에 이르기까지 11日 동안의 記錄으로 「射虎石記」라는 항목의 이를 동안의 일기 속에 本篇이 포함되어 있다. 無終山謀處의 어떤 王의 사당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主人과 菲談을 나눌 때, 벽에 한 篇의 奇文이 白露紙에 黑々하게 써어서 格子에 걸려 있었다. 燕岩이 그 格子에 다가가서 한 번 읽어 본 즉, 可히 絶世의 奇文이라, 燕岩이 누가 지

2) 創作과 批評(通卷11號, 서울, 1968)

3) 李在秀: 韓國小說研究(宣明文化社, 서울, 1969)

4) 常山 李在秀還曆紀念論文集, (蠻雪出版社, 1972)

5) 崇田語學 第二輯(崇田大學校 國語國文學會, 1973)

6) 本考에서 '作品外의 條件'이라는 말은 作品 그 自體를 分析 檢討하는 過程 以外에 「熱河日記」의 「關內程史」七月二十八日條의 앞뒤의 기록이나 「燕岩集」에 記錄된 跋文一史評 등을 일컬어 작품 그 自體와 區分을 위해 부르는 便宜上의 명칭이다. 作品內의 條件이란, 作品 그 자체의 構成이나 人物, 背景, 主題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作品外의 條件과 相對的이다.

은 글이냐고 물으니까 主人 沈由朋은 어떤 이가 지은 것인지 모른다고 하였고, 同行한 鄭進士가 또 연달아 혹시 主인이 지은 작품이 아니냐고 물어도 主人自身은 글을 한 줄도 모르고, 지은 이의 姓名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누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계속하여 이 글이 걸려 있는 연유를 묻자 沈由朋이 며칠 전에 蓟州의 市日에 사온 것⁷⁾이라고 날짜와 장소까지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주고 받은 다음, 배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저녁에 다시 燕岩自身이 鄭進士와 함께 壁으로부터 내려진 格子를 보고 또 다시 沈由朋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닌가고 물어보지만 沈은 밝은 촛불과 같이 거짓 없는 자기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형편에 부질없는 거짓 말은 삽가하고 있다는 비유까지 써 가면서 作者가 자기 자신이 아님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런 후 燕岩은

“돌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거요”⁸⁾

하면서 鄭進士와 더불어 둘이가 나누어서 배꼈다는 것이다. 이렇듯 燕岩自身이 本篇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고도 구체적으로 밝혀서 자기의創作이 아니라 中國의 어느 店舖에서 가져온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배끼게 된 動機(創作動機가 아닌)까지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편, 本篇 「虎叱」이 燕岩 스스로가 自作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작품이 연암의 創作品으로 認定되고 있는 사실을 다음의 記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滄江 金澤榮(1850—1927)이 「燕岩集」을 發刊하면서 「虎叱」의 作者問題에 言及을 加하고 있는데, 1900年 初刊 「燕岩集」의 「虎叱」跋에서

“蓋中國放言之士 託爲滿人罵漢人之辭 而先生潤而演之 爲此瑰奇之作也 或曰先生 爲世俗僞學而作…沈商云云 乃其假託 豈其然乎”

라고 하여 中國의 放言之士가 假託하여 滿人(滿洲族)이 漢人을 매도하는 글

7) 壁上懸一篇奇文 驚紙細書爲格子塗之 橫竟一壁筆又精工 就壁一讀可謂絕世奇文余因還座 問壁上所揭誰人所作 主人曰不知誰人所作也 鄭君問 此似是近世文 無乃主人先生所題耶 沈由朋曰 主人不解文字 旣無作者姓名…余曰然則 何從得此 沈曰 囊於 蓟州市日收買「熱河日記」「關內程史」

8) 沈問先生贊此何爲 余曰歸令國人一讀 當棒腹軒渠「熱河日記」「關內程史」

을 만들었던 것으로 燕岩이 그것에다 潤色하고 敷演하여 이와같은 瑰奇之作을 만든 것인데, 或者는 일컫기를 燕岩이 우리 나라 세속적 위학자를 위한 자작으로서, 沈商에서 얻었다는 말은 假託이었을 것이라는데 果然 그런 것일까 하는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滄江은 계속하여

“余觀之 盖沈舖所在者 即稗官小說數行之文 而先生認為前明遺民之所托 遂推演似爲大篇耶”

라고도 하여 燕岩이 前明 遺民의 託意之作으로 인정하고 드디어 이를 推論 敷演하여 大篇을 만든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온근히 中國人의 原作임을 主張하여 燕岩自身의 말을 是認하고 있다.

結局 滄江의 이 일련의 主張은 燕岩이 中國人 原作品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윤색 부연을加한 정도로 그쳐 燕岩의 創作品이 아니라는 사실을間接的으로 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滄江은 그 후 1930年 경에 「重編 燕岩集」을 發刊하면서 「虎叱」의 跋文에

“以余觀之 盖先生 惡世俗僞儒之無實行而好苛論 作此以譏之 而恐招怨謗 托彼以掩焉耳”

라고 하여 初刊本 때의 그것과는相反된 見解를 피력하였다. 燕岩이 世俗僞學들의 實行이 없고 苛論만 일삼는 僞儒들을 혐오하여 「虎叱」을 지어 그들을 譏斥한 것이지만, 怨謗을 招來할 것을 두려워하여 中國人的 作品으로 假託하였다고 추측하여 드디어 燕岩의 創作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滄江 한 사람의 跋文 속에 本篇의 原作에 대한 相異한 見解가 檢頭되는 사실은, 「燕岩集」을 發刊하면서 그의 作者規定의 어려움을 겪는 苦心의 一端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滄江인들 어떤 명확한 근거 資料나 確證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것인지의 해결의 묘법이 없었을 것이다.

筆者は 지금까지 살펴본 作品外의in 條件에서 提起되는 作者에 關한 問題 解決을, 어디까지나 燕岩自身의 記錄에 依據해야 할 것으로 主張한다.

燕岩이 「虎叱」을 얻게된 연유의 소상한 自己 記錄은, 적어도 「虎叱」이 「熱河日記」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熱河日記」는 燕岩의 상상으로써 얻은 기행문이라기 보다는 事實的인 資料에 더 충실한 一種의 르뽀르따쥐文學이라 할만큼 보다 많이 事實便에서 기록된 작품이다.

그러므로 「熱河日記」의 內容들은 상상력에 依한 架空의in 世界보다는 燕岩의 “이용, 후생, 정덕에 대한 追求精神에 따라 清의 풍토와 자리, 문물,

「虎叱」의 作者에 對하여 (吳相泰)<5>

제도, 풍속에서 정치, 군사, 경제, 건설, 종교, 문예, 고동(古董)에 이르기 까지 그가 驚異의 눈으로 보고 들은 見聞과 추리 연구를 문학적 기술로써 적은 것⁹⁾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虎叱」이 燕岩의 創作이었을 때 불러 일으킬 物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加해질 口舌數, 筆禍乃至는 비난과 지탄 등을 避하려는 意圖에서 燕岩 스스로가 本篇이 자기 작품이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기에는, 燕岩 자신의 작품인 「兩班傳」이나 「易學大盜傳」등은當時 社會의 批判과 暴露가 더 격심한 작품일지도 모른다.

文學이 時代에 따라 다르게 变천하고 地域에 따라 다르다는 論理를 전개하여 國學意識에 투철하고, 當時의 文體의 주체를 이해하고 文體反正에 對立되는 理論을 展開하는 燕岩이, 하찮은 口舌數나 筆禍를 모면하기 위해서 익명을 했을 可能性은 없어 보인다.

文學의 表現에 있어서도 寫實性을 강조하고 法古를 부정하는 그의 主張은 곳곳에 나타난다.

“文以寫意 則止而已矣 彼臨題煤毫 忽思古語 強覓經旨 假意謹嚴 逐字矜莊者 譬如招工寫真 更容貌而前也”¹⁰⁾

라고 하여 古語를 發見하려 애쓰고 억지로 經典을 찾아내어 文體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글자마다 矜莊하려다가는 참 모습을 그릴 수 없다고 하였으며

“即事有眞趣 何必遠古撝 漢唐非今世 風謠異諸夏…”¹¹⁾

라고 하여, 글이란 寫實에 眞趣가 있기에 하필이면 古代를 취할 것이 무엇인가라 하고 漢唐은 지금과 다르고 風謠도 우리는 中國과 다르다고 하여 문학의 表現에 있어 寫實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燕岩의 見解는 「熱河日記」「虎叱」後識에도 나타나 있다.

“篇雖無作者姓名 而蓋近世華人悲憤之作也 世運入於長夜 而夷狄之禍甚於猛獸 之無恥者綴拾章句以孤媚當世 豈非癸塚之儒而豺狼之所不食者乎”

라고 하여 이 篇이 비록 지은이의 성명은 없으나 대체로 근세 중국인이 비분함을 참지 못하여 지은 글이라는 사실은

“作者를 잡깐 中國人으로 假裝하여 國內의 수 많은 僞學者羣의 怒焰을豫放하였다.”

9) 元亨甲：燕岩對 現代文學의 距離(隨筆文學, 通卷 67號) p. 16.

10) 「孔雀館文稿」自序「燕岩集」卷三

11) 「贈左蘇山人」「燕岩集」卷四

<6> 嶺南語文學(第5輯)

고 보기 보다는, 李佑成 教授의 主張대로

“「虎叱」은 滿洲族 支配下에 曲學阿世로 자신을 適應시켜가는 中國人士들의 鄙劣狀을 풍자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中國人의 悲憤의 作이다. 말하자면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 자신의 告發이요, 聲討인 것”¹²⁾.

이라는 主張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熱河日記』의 「虎叱」後識에 보이는 “以竣中州之清焉”이란 明나라에 對한 清나라의 交贊勢力이다. 蘇在英 教授의 지적대로

“中國의 그런 狀況은 朝鮮에도 우연히一致하였다. 丙子胡亂 이후 清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사뭇 北伐論을 불러 왔다. 그러는 한편에선 反省的인 北學論이 한창 일어났다. 中原과 朝鮮의 이러한 狀況變化의一致가 燕岩으로 하여금 沈由明의 집에서 「虎叱」의 素材에 關心을 기울이게 된 動機가 되었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大作 「虎叱」이 <篇中有虎叱二字爲目>으로 作品化되었을 것”¹³⁾으로 추단되었다.

그러나 “篇中有虎叱二字爲目”이 <作品化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燕岩의 創作이라는 決定的 단서는 될 수 없을 것이다. 題目이 없으니까 편의상 本文 中의 ‘虎叱’이라는 낱말을 따서 잠정적으로 불린 이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燕岩의 短篇小說의 題目이 모두가 主人公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命名이라는 點이다. 「兩班傳」이 그렇고 「許生傳」이 그렇고 「烈女咸陽朴氏傳」이 그렇다. 이렇게 볼 때, 本篇이 燕岩의 創作이었다면 筆者의 추측으로는 「虎傳」이나 「北郭先生傳」乃至는 「東里子傳」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主人公 이름(명사)+傳>이 燕岩의 모든 小說 作品 題目的 公式이라면 「虎叱」만이 <虎(명사)+叱(동사)+(&)>이 된 異色的인 結果는 다른 작품의 제목과 너무나 엉뚱한 데가 있다. 다시 말하거나와 연암의 創作이었다면 주인공의 이름을 딴 <虎傳>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 燕岩으로 말하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自身이 屬해 있는 身分 계급의 속박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記錄하여 表現할 수 없었다거나, 政治權力의 통제나 압박이 심하여 어떤 일련의 위치에서 自由로

12) 李佑成: 『「虎叱」의 作者와 主題』(創作과 批評, 通卷11號) p. 450.

13) 蘇在英: 『「虎叱」再論』(崇田語文學 第二輯) p. 112.

운 意思 表示를 할 수 없는 그런 爲人은 아니었다. 「燕岩集」序에서 李應翼이 評한 것처럼

“모습이 추모라 하고 그 의기는 軒豁磊落 즉, 넓고 트이어서 막힌 데가 없고 또 놋눅하게 時文 짓기나 일삼아서 벼슬살이에 대일 떠위의 짓은 할 수 없는 인물” 이기도 하며,

“文章을 빌어 꾸두각시놀음 같은 不平之氣를 써서 장난거리로 산았던 인물”이며, 趙東一 教授의 지적대로, 燕岩은

“자기에게 절대적인 사회질서를 풍자”하고 “…자기 자신마저 풍자하는 비판정신”¹⁴⁾을 가진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위인이었다. 「熱河日記」 같은 폐판서기가 南壽에 의해 燭불에 태우려고 할 적에 南公轍이 이를 拒止시킨 일이 있었던 册이며

“썩은 社會, 썹은 冠冕, 썹은 儒學을 몹시도 謔罵한 것이어서 直後에 떼어버렸을”¹⁵⁾ 정도인 「易學大盜傳」이나 「鳳山學者傳」이었으니 「虎叱」 뜯지 않은 풍자정신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고 보면, 雖然이 本篇에만 익명을 했을理는 없을 것으로 料된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작품을 두고 <經世奇文>이라고 치탄할 만큼 우직하지도 않고 두 번 세 번 原作者가 燕岩 자신이 아닌 점을 鄭進士와 나누어서 글을 배낀 사실 자체에서도 中國人 原작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믿을 수 있다.

燕岩이 글을 배낀다는 사실 자체가 상상이나 추리로 처리될 수 없는 사실 자체라는 증거는 「渡江錄」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¹⁶⁾

물론 「熱河日記」에 실려 전하는 지금의 「虎叱」은 中國人의 原작이 원형 그대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燕岩의 표현대로 鄭進士가 배낀 부분이 너무나 誤字 脱字가 많아서 자기가 다시 後半部를 改作했다고 하였으며 그래서 작품 자체가 약간의 修正을 면하지 못했고 滄江의 말대로 敷演 확대되었거나, 李源周 教授의 主張대로

14) 趙東一：韓國文學思想史試論(知識產業社, 1978) pp. 272~273.

15) 增補 朝鮮小說史(學藝社) p. 172.

16) 與鄭進士分錄 以爲書肆攷求之資…渡江錄, 7月 3日條

“若干 短縮되었을 可能性”¹⁷⁾이 있거나, 金 起東 教授의 主張대로 “壓縮할대로 壓縮한 文章”¹⁸⁾이거나 간에 배끼는 둉기를 묻는 沈 由朋에게 “돌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 번 웃게 하려는”¹⁹⁾ 意圖에서 그렇게 했다는 燕岩의 소박한 表現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朴趾源이 폐관적 잡기, 기괴와 액조티즘에 침윤되어, 글을 쓸 때, 일하 여행이라는 디테일의 정확성으로, 이러한 현실적 타부의 여건을 위장하였다 는 것은 그 방법 자체가 기교이며, 베타포이고, 상상력이었음을 뜻하게 된다”²⁰⁾는 위장방법 자체가 고도의 상상력이라는 현대적 燕岩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작품 자체의 분석 과정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作品內的條件

자금까지 「虎叱」이 燕岩의 創作이 아닐 것이라는 근거를 作品自體가 아닌 作品以外의 「燕岩集」 및 「熱河日記」의 史評—後識—跋文 等의 記錄과 諸學者의 學說을 檢討하는 과정에서 살펴 보았다.

이제 作品의 人物이나 事件 및 地域의 背景 時代의 背景 나아가서는 謷刺의 方法이나 對象을 具體的으로 파악하면서 작품 속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作品分析에 有利하도록 작품의 줄거리를 順次的으로 작성하여 그 梗概를 따라 考察하여 보면

〔段落A〕…법은 習聖文武慈孝智仁雄勇壯猛하여 天下에 對敵할 자가 없으나 법을 잡아 먹는 몇 종류의 절승인 佛胃, 竹牛, 박, 五色獅子, 紛白, 표전, 黃婆 猶, 주이, 양용 中에서 법이 가장 두려워 하는 양용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나, 사람은 법을 두려워 한다.

〔段落A〕에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일은 법의 多樣한 性品에 관해서다. 많은 研究家들이 법의 正體를 벗겨보려고 여러 각도에서 시도를 해왔다.

법의 성품이 ‘착하고 성스럽고 문체롭고 효성스럽고 슬기롭고 어진面을 지닌’ 反面에 ‘싸움잘하고 엉큼스럽고 날래고 세차고 사나운’ 참으로 부자하고 다채로운 성품을 지닌 존재임을 주목해야 한다.

17) 李源周:『「虎叱」의 謷刺對象』(常山 李在秀 遷歷紀念論文集), p. 432

18) 金起東: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p. 510.

19) 沈問先生贊此何爲 余曰人歸令國人一讀 當棒腹軒渠「熱河日記」「關內程史」

20) 金允植:燕岩文學의 問題點(隨筆文學, 通卷 67號) p. 33.

사이비 양판 北郭先生과 사이비 東里寡婦之間의 東里子를 한 뜻을 하여 이 렇듯 다채다양한 성품을 지닌 범과 對決시킴으로써 사람의 假面을 쓴 假儒(北郭)와 범의 假面을 쓴 眞儒(虎)와의 作品構造上 프로타고니스트와 앤타고니스트의 對決로 設定된 構成法은 연암의 다른 作品들과 色別되는 點이다.

가령 「兩班傳」이나 「許生傳」에서는 登場人物에 대한 성격이나 외부묘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本聯에서는 그런대로 범의 성격이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作中人物이 아닌 話者가 범의 성품을 紹介하는 外話段落의 特色은 다른 作品에서는 수월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本篇의 범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곳에서의 범과도 다른 성격과 다른 종류의 범이다. 「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人間化 過程에서 품이勝利하는데 대하여 인내와 순박을 代表하는 그런 범도 아니고, 「虎智說話」에서 볼 수 있는 危急의 狀態에서 人間을 救해주는 山神靈으로서의 범도 아니요, 「金現感虎」의 죽음으로써 金現의 生命을 견지고 그의 出世를 돋는 범과도 다르고, 민족 고유의 民畫에 등장하는 인자하고 유머러스한 자태로서의 범도 아니다. 어질고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착한一面이 있는가 하면, 영큼스럽고 싸움잘하고 사나운 면도 있는 그야말로 다채롭고 근엄한 全知的 存在로서의 범이다.

결국 本篇의 범의 正體는 中國人 中의 사이비 假儒인 北郭先生과 사이비烈女 東里子를 춘연하게 비판하는 범의 가면을 빌린 眞儒와 사람의 가면을 쓴 假儒와 더불어는, 그리하여 眞儒의 눈을 通해서 무능하고 비열한 中國人士들의 腐敗相을 批判하는 우화적 형식의 人物일 따름이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일만권이요, 또 저서가 일만 오천권이나 되는, 그리하여 天子가 그의 義를 아름답게 여기고, 諸侯들이 그의 이름을 사모하는’ 北郭先生과 ‘天子가 그의 절조를 가루히 여기고 諸侯들은 그의 어짊을 연모하여 고을 四方 몇 리의 땅을 封하여 東里寡婦之間의 表彰을 받은’ 東里子의 醜惡한 態度를叱責하기에 충분한 絶對的 存在로서의 범인 것이다.

北郭先生과 東里子를 暴露하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平凡하고 日常의이고 同等한 人間이 登場하여 對決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큼스럽고 사나운 범이 등장하는 것이다.

“當時 貴族社會의 儒善의인 假面과 腐敗相을 刊抉하기로서는 露骨의인 描寫를 避하고 諷刺의 및 暗喻의 手法을 씀에 우리 民族의 畏敬의 symbol로 보는 호랑이를 가져 왔으니, 호랑이에 대한 우리 民族의 信仰을

엿볼 수 있는”²¹⁾

것이라고主張한 호랑이도筆者의 생각으로는韓國產호랑이가 아닌中國產호랑이라고 생각된다.

燕岩의平素思想으로 보아「烈女咸陽朴氏傳」의

‘然而國典改嫁子孫勿叙正職此豈爲度姓黎社而設哉乃國朝四百年來百姓既沐久道之化則女無貴賤族無徵顯莫不守寡’

는李朝四百年來의惡法에서벗어나지못하는지나친殉烈을슬퍼하는燕岩의平素의所信이, 같은과부를택하면서本篇에서,

‘邑之東有美而早寡者曰東里子…東里子善守寡然有五人各有其姓’

이라고하여내용상燕岩의平素의思想과는너무나동떨어진,말하자면虎此」과「烈女咸陽朴氏傳」의思想의對立은너무나異質的으로나타난다.여기에서本篇이燕岩의創作이아닐근거는可能해진다.

[段落B]…벌이한번 사람을먹으면 <굴각>이되고 두번쨰 사람을먹으면 <이울>이되고 세번쨰 사람을먹으면 <초훈>이되는데 이들이 각각먹을대상인뿔가진것도아니고 날짐승도아닌검은머리한것이눈위에는발자국이비틀비틀,성진걸음,뒤통수에꼬리붙어꽁무니를못감추고‘그런놈’과東門에사는‘의원’과西門에사는‘무당’및인자한영통과義氣로운출기에충성스런마음을지니고,순결한지조를품었으며,樂은머리에이르시피,禮는신처럼꿰고,입으론百家의말을의우며,마음으로萬物의이치를통한‘碩德之儒’를먹을대상으로 범에게추천한다.

[段落B]에서먼저생각해볼문제는범에게창귀들이서로다투어가며범에게추천하는<五行相生>說이다.金澤榮丘前述한바와같이

“怨謗을招來할것이염려되어자中國人의作으로假托하여자기를掩護”한이유中의한가지로이“<五行相生>說을들어,이는燕岩의平素持論그대로이며中國人에게는없었던말이라”

고하여本篇의燕岩의作임을立證하고있다.

그러나中國에서의<五行相生>의思想은李家源教授의研究²²⁾에依하

21) 柳增善：虎狼文學과民俗（語文學，14號，大邱，螢雪出版社）p.80.

22) 李家源：前揭書 p.554 參照。

면 몇 천년을 두고 彌滿하여 심지어 小說界까지 침투되었고 그 由緒가 秦始皇 때부터 起因된다고 하니 中國人們이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며, 특히 燕岩 혼자만이 平素에 품고 있었던 持論이라고 限定해서 보기는 힘들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說이 燕岩 혼자만의 關心의 對象이 된 것이 아니라, 李朝人의 日常生活 속에 깊이 스며든 사상의 일دان임을 상기하면 金澤榮의 根據는 燕岩의 「文學觀」에 비추어 보더라도 本篇이 燕岩自身의 創作임을 증명하는 근거로는 客觀的인 타당성이 없다. 本篇은 연암의 다른 作品에 비하여 中國의 古事나 「詩經」「孟子」「禮記」등에서의 인용 빈도는 너무나 찾다. 작품에 표출된 이들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財成 • 輔相(易經)
- 鰥鶩在屏 啟耿流螢
- 維鸞維鎧 云誰之型 興也(詩經)
- 呼錢爲兄(晉書)
- 求將殺妻(春秋)
- 雖有惡人 瘋戒沐浴 則可以事上帝(孟子)
- 謂天蓋高 不敢不跼(詩經)

글을 쓰려할 때 문득 古語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억지로 經典을 찾아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좁된 것을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고 強調한 燕岩의 所信으로 볼 때, 위와 같은 허다한 中國古語의 使用은 그에게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燕岩이 「虎叱」에서

‘五行은 각기 제 바탕이 있어서 예당초 서로 낳는 것은 아니거늘 이제 그들은 구체여 子母로 갈라서 심지어는 짜고 신 맛을 들여서까지 分配사켰으니’

라고 하여 五行이 각기 개별적으로 定位되어 있는 것이지 子母의 相生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그런데도 억지로 子母關係를 성립시켜 찬맛 신맛에까지 분배하고 있다고 攻破했다는 사실이

“미신을 부정하는 합리적 사고와 사물을 그 자체 독자적인 측면으로 보려는”²³⁾

燕岩의 개체주의적인 사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더구

23) 李東歎: 燕岩의 思想과 小說(古典文學을 찾아서, 文學과 知性社, 1976) p. 221.

나 儒者의 고기는 비록 碩德으로 五味가 俱存되어 있다하나, 五行, 六氣가 다 들어 있으니 그 맛이 雜되고 不純한 것을 五行相生을 빌어 주장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滄江이 앞서 「虎叱」이 燕岩의 作이라는 사실을 證明하는 또 하나의 理由로서

“상체된 자도 먹지 않으니 그 美야말로 이루 끌 수 없다”²⁴⁾

라고 하여 ‘喪服者不食’이 우리나라의 속담을 말한 것이라고 보고 「虎叱」이 연암의 작품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느 種族이든 <상체된 자를 먹을> 그런 種族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俗談 하나가 우리의 속담에 屬하는 것이기 때문에 「虎叱」은 燕岩의 創作에 속한다는 근거는 역시 일면적인 타당성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 逆이 또 반드시 成立될 수는 없겠지만 역설적으로 말해서 속담이나 풍속이 없다면 中國作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필자가 열거한 사실 이외에도 얼마든지 더 지적할 수 있다.

단적인 예들 하나만 들어 본다면, 범이 꾸짖는 九百餘言 中에서 ‘개미 알을 젖담아 조상께 제사지낸다’는 사실은 우리 풍속에는 없어도 中國에서는 있었던 것이다.²⁵⁾

[段落C]…鄭나라 고을에 碩德之儒인 北郭先生과 東里寡婦之閭의 旌表를 받은 東里子가 있어 어느날 밤 둘이 밀회를 하였는데 各姓 東里子의 五子가 밀회장을 습격하여 ‘北郭先生과 같은 점잖은 분이 남의 집 과부의 방에 올 리가 없다. 필시 千年 묵은 여우가 北郭先生의 모양으로 변하여 온 것이다. 저 여우를 떠려 잡자고 습격하여 당황한 北郭先生이 일단 위기를 탈출하여 벌판으로 달아나다가 똥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지금까지 要略한 [段落A]에서 [段落B]까지의 줄거리는 범의 禮讚에 따르는 사건에서 범의 威風을 소개하고 범에게는 많은 창귀가 있어 그들 창귀가 등장하여 범과 問答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등 작품의 서두로서 作中人物이 아닌 話者의 視點에서 범의 성품을 추상적 의미만으로 제시해 놓았다.

24) 喪服者不食一句卽本國之諺也 余疑中國或有次諺 試叩之淮南諸之士 皆以未聞答之「燕岩集」「虎叱」跋文

25) “醴蟻之子 以羞祖考는 곧 服餚蜋醢를 이름이었으니, 이는 中國의 古代에 개미의 알, 곧 「蜋」를 젖을 담아 제사에 썼던 것이다.” 李家源：前揭書 p.572.

[段落C]에서는 作品 構成上 事件을 展開하는 具體的 단계로서 背景과 人物이 紹介된다.

먼저 이 작품의 地域的인 舞台가 <鄭之邑>인데 놀랄 수 밖에 없다.

李朝小說의 대부분이 時代의 地域의 背景을 우리 나라가 아닌 中國에 다 두고 있으며, 혹은 時代의 背景이 한국이면서도 地理의 背景은 우리나라나 中國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지 않고, 또는 時代의 背景이 中國이면서도 地理의 背景이 우리나라와 中國에 걸쳐 있는 것도 없지 않다.

李朝小說의 序頭가 대체로 <화설+年代(王朝)의 背景+地理의 背景+人物 登場(登場人物의 說明)>의 公式으로 展開되는데 「虎叱」의 地理의 時代 時 背景은 이 公式에 어긋난다.

우선 地理의 背景을 <鄭之邑>으로 限定하여 年代의 背景은 除去되고 地理의 배경만이 獻연하게 설정되고 있다.

이 점은 나머지 九篇의 연암작품이 모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지역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²⁶⁾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너구나 鄭邑은 歷史上 가장 淪亂했던 中國을 가리키는 地域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鄭邑>은 꼭히 中國이라고 고집할 근거는 없다하더라도 人間이 사는 地球上의 어느 한 지역이지 그 위치가 지리적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다. 적어도 「虎叱」의 舞台가 韓國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高度의 상상력에 의한 설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점도 「虎叱」이 연암의 찬작품이 아닐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좋은 증명이 된다.

時代의 背景도 마찬가지다. 燕岩의 다른 作品이 적어도 시대적 배경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虎叱」은 작품 자체에서는 알아볼 수 없다. 時制上의 과거 언제쯤인지, 역사적으로 어느 時代를 대변하는지를 알 수 없다. 或者는

26)

作 品	背 景	作 品	背 景
兩班傳	旌善	穢德先生傳	宗本塔
許生傳	墨積洞	廣文者傳	水標橋
馬肅傳	廣通橋	烈女咸陽朴氏傳	咸陽
閔翁傳	鍾樓	金神仙傳	西學洞
虞裳傳	三都	虎叱	鄭邑

이런 完全한 暗喻가 燕峯의 높은 상상력의 결과라고들 하지만, 「熱河日記」가 지나친 상상력에 의해서만 產生 記錄된 것이 아니라 事實에 土台를 두고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前章에서도 밝혀 둔 바 있다.

“『鄭』을 汪國임을 前提로 하고 첫布石을 내린 것이었고, 또 北郭先生이 五子에게 不意의 습격을 당하자 그의 虛偽의인 隱蔽의 手段으로 온갖 狂劇을 다 演出하였으나, 그 代價로서 저 清涼里 들판에서 뚩구덩이의 洗禮를 받게 된 것이다.”²⁷⁾

라는 <清涼里>는 도례체 本篇에서는 그 根據를 찾아볼 수 없는 막연한 추측일 따름이다. 人物이나 舞台를 모두 中國으로 설정해야만 朝鮮朝 儒學者들이 덜 노여워 했으리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일 따름이다.

登場人物 北郭先生을 자세히 보자.

<鄭邑>의 淫亂한 고을에 사는 이름높은 儒學者로서 손수 한 校書가 일만 권이나 되고 著書가 일만 오천권이나 된다는 과장적 표현 자체가 다분히 中國式이다. 그는 남몰래 과부 東里子나 글방에 들어들여 근엄한 威儀로 표리 부등하게 사랑을 나누다가는 東里子의 異姓 五子에게 습격이나 당하고, 五子의 포위에서 피신하다가 뚩통에나 빠지고, 九死一生으로 살아나오자 말자 범을 만나서 갖은 아침이나 하는 無氣力한 人物이다.

燕峯의 다른 九篇의 作品에 설정된 人物들과 대조하여 보면 北郭은 너무나 그들과는 異質의인 人物이다.

「許生傳」의 卞承業이 中人·譯官으로, 「馬駒傳」의 마장이가 市街 거간군으로, 「穢德先生傳」의 蟬鬻子가 實存人物인 李德懋로, 「閔翁傳」의 閔翁이 不平琦人으로, 「金神仙傳」의 金神仙이 金弘基로, 「廣文者傳」의 廣德이 종루거지·상점 고용인으로, 「虞裳傳」의 虞裳이 中人·譯官으로, 「兩班傳」의 兩班, 郡守, 觀察使 등등이 그 時代를 살아서 움직이는 生命과 個性을 지닌 人物들이다. 이들은 광통교, 운종가, 왕십리, 수표교 등을 살아 움직이면서 그 時代의 정조를 그들 스스로가 힘있게 반영하는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本篇의 北郭은 이름 자체가 도례체 朝鮮式 이름이 아닌 것 같다.

廣文이나 馬駒처럼 實踐行却을 하는 人物도 아니고, 超人的 能力を 갖거나 英雄的 氣質을 가진 人物도 아닌, 결으로만 근엄하고 점잖은 그래서 現實에 뿌리를 박고 있지를 못하고, 현실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무능하고도 非現實的 人物로 그려져 있다.

27) 李家源: 前揭書 p.558.

北郭은 어느 特定한 時代의 어느 特定의 人物을 具體的으로 謷刺하기 위한 手法으로 當악하는 方法은 지나친 비약이다. 「虎叱」全體의 tone으로 보아 모든 社會의 이면을 갈파하였다. 그러므로 李家源 教授가 “北郭先生은 國內의 頭 口號를 부르짖는 北伐論의 僞儒學者에게 비하였던 것이다.”²⁸⁾라는 見解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段落D]…이 단락은 법이 뚽구덩이로부터 간신히 기어 나온 北郭先生을 향해 무려 九百餘言의 신랄한 꾸짖는 말로 一貫되어 있다. 그런데도 北郭은 감히 한 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고 꾸지람을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과파하고 批判한 것을 모조리 다 과파하고 비판한 후 법은 동녘에 밟아오는지라 어디로인가 가 버렸다. 마침 농부가 아침에 밭을 갈려 가다가 북파선생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먼저 本篇의 풍자 方法과 그 對象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燕岩은 그의 人間性이나 思想性에 있어서 一生을 批判精神으로 一貫해 왔다. 이 批判精神은 그의 모든 著述에 나타나 있고, 특히 그의 모든 文學作品은 실로 謷刺의 要素로 팽배해 있다.

「虎叱」에 투영되어 있는 풍자정신을 분석하여 보면 本篇이 가장 강렬하고 多樣한 풍자의 방법과 대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법의 성품이 天下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칭찬을 통하여 인간이 짐승의 하나인 법보다 못함을 外話段落에서 풀이하여 人間 本來의 허식을 지적하고 있다.

外話段落에서의主人公이 아닌 話者가 법의 威德을 격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内話段落의前提에서 이루어 진다.

燕岩의 謷刺는 언제나 人間肯定에서 그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虎叱」의 풍자는 이와 다르다. 법의 입을 통하여 人間本性에 대한 批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8) 李家源: 前揭書, p. 560.

종래 몇몇 학자들이 金台俊이 北郭先生을 龙庵學派로 본다는 見解는,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의 文脈을 잘못 판독한 것으로 思料된다. 金台俊은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그는 深博한 抱負를 가지고 베풀듯이 없어서 當世에 隆盛한 尤庵學派를 謷刺하며 衍學의 廣儒老學을 懲弄하여 繁文縟禮의 隨習을 攻擊하여 當局者들의 無能을 痛罵하야…”라는 말은 꼬집어 北郭先生을 尤庵에게 비긴것이 아니라 燕岩의 絶倫한 精力과 卓越한 才能이 그렇다는 뜻이지 결코 北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金台俊이 「虎叱」을 두고 “모든 人間社會의 裏面을 喝破하였다.”는 主張은 저극히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筆者는 본다.

'범은 나무나 풀새를 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고 강술을 즐기자 않고
것이나 알 같은 자질구레한 것도 차마 먹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저 마소의 태워
주고 일해주는 공로도, 사랑하고 충성하는 생각도 다 저버리고 다만 푸줏간이 떠어
지도록 이들을 죽이고 십자에는 그 뿐과 걸기까지 남기지 않고도 다시금 우리들 노
루와 사슴을 토색질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산에서 먹을 것이 없고, 들에서도 끼니를
굶게 하니 하늘로 하여금 이를 공평되게 처리한다면 너희를 벼어야 하겠는가? 놓아
주어야 하겠는가?'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다. 生來의인 人間惡을 否定하고
人間에 대한 격분이 날카로워진 辛辣한 풍자다. '잔인하고 박덕함이 너희들
(인간)보다 더할 자가 있겠는가?'

그렇다. 「虎叱」의 作者가 보는 人間惡은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天生의인 것이다. 그가 人間을 보는 눈은 悲觀의이다.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도 사람이 저희들끼리 서로 잡아 먹는 이
만큼 많지 못할 것이야. 지난해 關中이 크게 가뭄었을 때, 인민이 서로 먹
을 자 몇 만 명이요, 그 앞서 山東에 큰 물이 났을 때 인민들이 서로 먹은
자 역시 몇 만 명이었네 그려.'

낙관주의적 풍자작가가 설령 어리석음에 의하여 人間이 질병을 얻더라도
그 질병을 발견하여 주사(諷刺)를 놓고 치료를 하면 구제의 길이 열리는 데
비하여, 비관주의적 풍자작가는 이 세상이 온통 불치의 병자와 저능아 마약
상용자들로 우울거리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주사(諷刺)를 놓고 치료를 하
여도 구제불능인, 生來의인 人間惡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람이 저
희끼리 잡아먹는 이'가 범보다 많다고 보는 부정적 작자의 이 풍자는 燕巒
의 긍정적 풍자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樂觀主義的 諷刺家는 모든 人間을 사랑한다. 그는 다만 人間들이 無知하고 어리
석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낙관주의적 풍자가는 微笑로써 眞實을 이야기
한다. 그는 無知나 어리석음의 人間을 비난하기보다는 치유하려 한다."

反面, 悲觀主義의 諷刺家는 모든 人間을 誹謔하고 경멸한다. 그는 惡行이 그의 世
界에서는 勝利라고 믿는다. 그는 個人은 사랑할 수 있지만 人間은 중요한다. 그렇
기 때문에 그의 諷刺는 치유가 아니라 부상을 입히고 고통하고 형벌을 加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²⁹⁾

29)One likes most people, but think they are rather blind and foolish. He tells truth with a smile, so that he will not repel them but cure them of that

여기서 「虎叱」의 讽刺의 方法과 對象이 燕岩의 다른 作品에서 보여지는 그것들과 다른 점이 있다.

사회제도를 보는 「虎叱」의 作者 또한 否定的 人生觀의 所有者다.

‘심지어 돈을 兄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일까지도 있은 죽, 이터고도 인륜의 도리를 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作家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작가로서의 실제적 개성의 발휘>라기 보다는 <풍자작가로서의 개성>을 십분 발휘한 뛰어난 풍자작가의 能力이 있다.

「虎叱」의 作者가 보는 풍자는 어디까지나 汎人類의 인 對象을 擇하고 있고 그 方法이 悲觀主義의이다. 本篇의 讽刺對象은 어떤 特定한 時代의 特定한 人物을 지적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北郭은 이조 후기의 한 개인으로서의 北郭이 아니라 인류 전체(whole race of man)를 대표하는 사회 집단의 한 유형³⁰⁾으로서의 北郭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燕岩의 풍자 이면에는 언제나 교정이 담겨 있는 의도에서 파악된다.

「兩班傳」에서 没落兩班이 비록 困窮하더라도 그 本分을 잃어서는 안되는 데, 曲學阿世로 門閥과 勢力만 믿고 作弊를 일삼다가 兩班 身分을 매매하지만 그러나 작자 燕岩은 끝까지 그 양반을 동정하여 부자를 폐배시킴으로서 양반을 肯定的으로 處理한다.

「許生傳」에서도 許生이라는非凡한 人物이 追求하는 理想世界의 志向과 그 活動은 마침내 現實世界에 뛰어들고, 이어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처리한다.

이와같은 讽刺의 方法이나 對象에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虎叱」속의 그것들은 燕岩의 다른 作品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根本의으로 다르다. 根本의으로 異質感을 느끼는 풍자의 태도와 방법에서 「虎叱」이 燕岩의 作品이 아닐 가능성을 크다.

ignorance which is their worst fault.

The other type hates most people, or despises them. He believes rascality is triumphant in his world; that though he loves individuals he detests mankind. His aim therefore is not to cure, but to wound, to punish, to destroy. G. Hightet; The Anatomy of Satire (Princeton Univ. Press) p. 235.

³⁰⁾That butt may be an individual (in "personal satire"), or a type of person, a class, a nation, or even the whole race of man.

M. 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57)

III. 結 言

以上으로 筆者는 「虎叱」이 燕岩의 創作品이 아닐 가능성을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하여 왔다. 이제 그 내용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作品外的條件에서

1) 滄江이 「燕岩集」에서 燕岩이 당시의 世俗 僞學들의 實行이 없고 까다로운 議論만 일삼는 것을 증오하여 「虎叱」을 짓고도, 憎謗을 초래할 것이 염려되어 中國人의 作으로 假託하여 自己를 掩護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 자료나 확증이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을 얻기 힘든다. 더구나 滄江은 몇번에 걸쳐 「燕岩集」을 발간할 때마다 相反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보아도 명확하게 本篇이 燕岩의 創作^o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燕岩이 本篇을 얻게된 연유의 소상한 자기 기록 즉, 「熱河日記」의 「虎叱」前後의 자기 고백 속에 담겨진 기록을 소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沈由朋의 店舖에서 鄭進士와 더불어 어떤 中國인이 쓴 <絕世奇文>을 배끼게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 사람에게 읽혀서 <한 번 웃기게 하려는>동기까지 지니고 있었다.

燕岩 스스로가 자기의 自作이 아니라고 하였고, 「虎叱」을 담고 있는 「熱河日記」가 상상적인 作品이라기보다는 事實性에 근본정신을 두고 쓴 그릇이기 때문이다.

3) 「熱河日記」에 실려 있는 「虎叱」은 물론 中國인이 쓴 원작 그대로는 아니다. <확대부연>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약간 단축>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압축할대로 압축한 문장>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암이 말한대로 原作에 對한 약간의 修正乃至 改作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虎叱」은 어디까지나 中國인이 쓴, 中國인이 中國人을 대상으로 하여 고발하고 풍자하고 성토한 작품으로 한국문학의 범주에는 소속될 수 없다.

4) 燕岩은 本篇의 題目이 없어서 原文中의 虎叱二字를 뽑아서 제목을 삼고 있다.

이와 같은 行爲도 本篇이 燕岩의 作品이 아님을 間接的으로 시사해 준다.

연임의 모든 다른 작품이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제목이 붙여진 일貫성으로 미루어 볼 때, 本篇이 燕岩의 創作이었다면 그 제목은 「虎叱」 아닌 「虎

傳」이 되지 않았을까?

5) 燕巈이 果然 ‘人叱’이나 ‘世叱’을 두려워 해서 자기 이름을 숨겼을까?

自己 作品을 自己가 評價하면서 <絕世奇文>이라고 할만큼 燕巈이 우직하지도 않으며, 「虎叱」정도의 내용이 작자의 이름이 밝혀짐으로서 所謂 ‘世叱’의 憎謗이 두려울 정도라면 「兩班傳」등도 이름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 아닌가?

둘째, 作品 內的 條件에서

6) 本篇에 등장하는 범은, 범의 假面을 쓴 貞儒와 人間의 假面을 쓴 假儒와의 作品 構成上의 프로tagonisT와 안tagonisT의 대결 구조이다.

眞儒(眞)와 假儒(北郭先生)를 尤庵學派에 비기거나 李朝時代 儒學者의 像으로 파악할만한 암시가 없다. 그렇다면 「虎叱」이 韓國文學에 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준열한 비판정신을 가진 범의 全知者的 態度는 위기에서 인간을 구해주는 한국설화에 나오는 범도 아니고, 인내와 소박을 대변하는 단군신화의 범도 아니고, 민화 등에 나오는 점잖고 유머러스한 범도 아니다. 生動感도 없고 어천 特定한 時代意識도 지니지 못한, 그래서 現實에 뿌리밖지 못한 막연한 人物로 設定되어 있을 뿐이다.

7) <五行相生>說을 들어, 燕巈의 平素 持論이니까 「虎叱」이 燕巈의 作品이라는 主張은 微視的 觀察에서 나온 見解다. <五行相生>이 燕巈 혼자만의 持論일 수 없고 中國에서도 秦始皇 以來 수천년 동안 내려오는 사상이며, 우리나라 李朝人の 日常生活 속에도 깊이 스며든 思想의 一端임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은 지엽적인 見解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그 反對로, 「虎叱」은 燕巈의 다른 文學作品에 比해서 무수히 많은 中國 古事나 經書를 引用하고 있는 바, 이 점이 오히려 本篇이 연암의 작품이 아니라 中國人의 작품일 것이라는 간접적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8) ‘喪服者不食’이란 사실이 우리나라의 속담이고 「虎叱」은 평소 우리 속담을 즐겨 썼으니 本篇이 燕巈의 作일 것이라는 주장이 滄江의 見解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제된 자를 즐겨 먹을’ 그런 종족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本篇에 나타나는 ‘개미알을 젓담아 조상께 제사지였다’는 中國古代의 관습이야말로 本篇을 中國人이 쓴 작품임을 강력하게 뒷바침하는 반증이 될 수 없을까?

9) 本篇의 作品舞台가 우리나라가 아닌 中國(鄭邑)이라는 점이다.

本篇 이외의 연암의 다른 모든 작품이 그 地理的 背景을 우리나라에 설정하고 있는 데 비하면 「虎叱」은 너무나 餘他의 그의 作品들과 同質性이나 관

현성이 없어 보인다.

10) 人物 역시 燕峯의 다른 作品들과는 영뚱한 테가 있다. 종루 거지, 거장군, 不平奇人 中人譯官들의 現實 속에 살아 웃직이는 人物과는 反對인 無能하고 形式的인 北郭先生에게서는 燕峯의 實踐行却을 찾을 수 없고, 李朝法典의 잘못으로 인하여 男權獨裁의 封建性이 빛어졌음을 개탄한 烈女朴氏에 비해 燕岩思想과는 거리가 먼 東里子에게서는 남녀의 情을 重視하여 거기서 本然之性을 찾으려는 燕峯의 眞實性을 찾을 수 없다.

11) 讽刺의 態度와 對象에서 本篇은 燕岩의 다른 作品과 對照된다. 人生을 肯定的으로 바라보지 않고 격분이 날카로워진 悲劇的 讽刺家의 態度로一貫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 먹음이 법의 세계보다 더 많고, 친인하고 박녀함이 人間보다 더 할 자가 없다고 본다.

對象 역시 本篇은 李朝라는 限定된 狀況이나 特定의 人物에 카메라의 맹글을 맞춘 혼적이 없고 人類 全體에 대한 根本的인 生來的인 人間의 아리석음이나 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不仁하기 짹이 없는 人間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燕岩이 '李朝 兩班'을 두고 비판하고 폭로 했다는 방법이나 대상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